

제6실 | 염직 | 대형 번과 염색 기법

N-316: 능직비단 번 조각

번은 사원 공간을 장식하는 장엄구의 하나로 불당의 안팎에 걸어놓는 깃발입니다. 이 번은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번두가 사라지고, 아래쪽 번족도 극히 일부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. 두 줄의 테두리로 둘러싸인 평이라 불리는 구획은 세로로 매우 길쭉하며, 테두리는 평마다 안쪽과 바깥쪽의 색을 바꾸고 있으며, 그 부분에는 금동제 둥근 모양 장식물을 달았습니다.

N-319-62: 평직비단 대형 번 조각

갈색을 띤 황색 바탕 평직비단으로만 제작된 대형 번입니다. 테두리는 한 줄이며, 테두리와 평을 구분하는 경계선도 한 줄이며, 테두리로부터는 띠 모양의 번신수가 나와 있습니다.

N-29: 앵무무늬 납염 깔개

마주보는 물새들 그림을 담은 팔각형과 대칭되는 풀꽃무늬 위에 나비를 표현한 무늬를 교대로 넣었습니다. 각각의 무늬들은 균등하게 배치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, 한 개의 틀마다 밀랍을 묻혀 무늬를 찍어낸 것으로 추측됩니다.

N-319-44: 교차무늬 교힐 평직비단 번족 조각

N-319-45: 교차무늬 교힐 평직비단 번족 조각

견으로 만든 번에 부착된 번족의 일부로 크게 X자로 교차된 무늬를 교힐 기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. 교힐이란 홀치기 염색을 뜻합니다. 이 교차무늬는 긴 천조각을 한쪽 끝부터 대각선으로 감아서 실이나 가는 끈으로 묶어서 염색한 것으로 추정되며, 대담한 구성이 인상적입니다.

N-319-91: 황록색 바탕 교힐 평직비단 천개 드리개 조각

N-319-93: 진한 녹색 바탕 교힐 평직비단 조각

N-319-94: 황색 바탕 교힐 평직비단 조각

N-319-124: 녹색 바탕 교힐 평직비단 조각

교힐은 홀치기 염색을 뜻합니다. 작품을 보면 감았을 때의 실이 한 줄이었다가 두 줄이기도 하고, 감은 형태가 사각형인 것도 있는 한편 원형이나 약간 찌그러진 타원 모양도 보입니다. 손으로 하나하나 감아서 제작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 없습니다.

N-319-95: 자색 바탕 교힐 능직비단 조각

교힐 기법은 평직비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, 이 작품처럼 능직비단에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합니다.

N-319-96: 열린 갈색 바탕 꽃·새·구름무늬 그림을 찍어낸 평직비단 조각

먹만으로 꽃나무와 풀꽃, 마주보는 새무늬를 만들어 배치하고 그 사이에 구름무늬를 나타내었습니다. 같은 종류의 다른 조각들과 맞추어 보면 상당히 큰 무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무늬는 종이를 사용하여 그림을 찍어낸 것이라고도 하며, 틀을 사용하여 판화처럼 찍어낸 것이라고도 하는데, 확실하지는 않습니다.